



# KATUSA/ U.S. SOLDIERS' FRIENDSHIP WEEK



Cpl. Kang, Byung-sam

씨름경기의 모습. 카투사들은 미군들에게 씨름을 가르쳤고 한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했다.

**Soldiers play Ssireum, which is a Korean traditional form of wrestling.**

(오른쪽) 미식축구의 일종인 플래그 풋볼 경기장면. 악천후와 그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띤 경기를 펼쳤다.

**(right) Soldiers play flag football in tough field conditions.**

(오른쪽) 백선엽 예비역 대장, 미8군 사령관 캠프 벨 중장이 8명의 수상자에게 최초의 백선엽 리더십상을 수여하고 있다.

**(Left) Eight soldiers were awarded the first Paik Sun-yup leadership award by Gen.(Ret) Paik and Lt. Gen. Charles Campbell, 8th U.S. Army Commander.**







Cpl. Kang, Byung-sam



Cpl. Kang, Byung-sam



Pfc. Yoon, Jong-pil

(위) 용산 발보니 극장에서 열린 장기자랑 행사에서 8군본사 팀이 공연하고 있다.

**(Above) U.S. Army Troop Command Korea team perform at a talent show at Balboni Theater in Yongsan Garrison.**

## - TOGETHER WE STAND -

2003 년 카투사/미군 친선주간 행사가 5 월 초에 열렸다. 우수 카투사 상병, 병장들에게 주어지는 백선엽 대장 리더십상의 첫번째 수여식으로 시작된 친선주간 행사에서 카투사들과 미군들은 한 팀을 이뤄 소프트볼, 씨름, 농구, 축구, 줄다리기 등의 운동 경기들에 참가하였다. 장기자랑 시간에도 그들은 그동안 연습한 결과를 많은 병사들 앞에서 펼쳐 보였다. 또한 도자기, 김치 만들기, 전통 혼례 재현, 민속 놀이 체험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도 있었으며, 부대원들의 가족과 연인, 친구를 부대로 초청하여 이들이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사도 열었다. 한편, 국방부 의장대, 태권도 시범, 인기가수들의 공연 등이 행사주간 동안 이어지며 카투사/미군 친선주간을 축하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The KATUSA-U.S. Soldiers Friendship Week was held in early May. The event kicked off with the Gen. Paik Sun-yup Leadership Award Ceremony, which recognizes excellent KATUSA Noncommissioned Officers. During this period, many KATUSA and U.S. soldiers participated in the sports events, such as softball, basketball, soccer, and tug of war. There was also a talent show where soldiers performed. The U.S. soldiers had a chance to learn the Korean tradition by making potteries, making kimchi and wearing Korean traditional clothes. The following events like a Honor Guard demonstration, taekwondo demonstration, and entertainment show also celebrated the week and raised the morale of the soldiers.